

참된 믿음

본문 : 롬 4:17~22

- 김사무엘 선교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나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도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모범적인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으로 성장시키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마지막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표현하셨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부르마'라고 예고를 했다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를만한 함당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앙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행동을 하십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소원하고 갈망하게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모든 만민들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필요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필요를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자기고 있는 알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절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절벽 너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75세임에도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의 관심을 아이를 통하여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통해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합니다. 13장을 보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이 달는 곳 전부를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경계를 넓혀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던 그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 가면 “못별을 보라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하여 너로 하여금 열조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인색한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투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흥분되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다 지친 사라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 하갈의 태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내 욕심의 욕구를 빨리 채우려는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다 해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0세에 주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쉽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훈련

인간은 필요한 것을 얻으면 그 이후에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는 “이것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보다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그를 인도합니다.

그 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만연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와같은 타락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로 물들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아들을 타락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세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

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뿐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에서 가르쳐줍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낮 뜨거운 죄악이 벌어지는 현장을 주님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을린 나무를 불에서 끄집어내듯 롯을 구출해 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약속된 아들이 이 땅에 내어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 아들을 주심은 곧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이 약속된 아들은 훗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1백세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내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적당한 때에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준 축복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축복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시험입니다.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복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독자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는 늙은 아비, 늙은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선한 행동 때문에 그를 축복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은혜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면 주님을 그것보다 배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내 벗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 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 매우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쓰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 금슬 좋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벗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군신간의 사랑입니다. 종과 주인간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한 주인을 오래 섬기던 사람이 그의 종으로써의 기한이 다 이르러 자유할 수 있을 때가 되었으나 그 주인을 사랑해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영원히 그 집의 종으로 섬기겠다고 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설주에 그 귀를 놓고 구멍을 뚫어 영원히 그 집에 종으로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군신관계가 맺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여 이 땅에서 그의 위대한 일들을 이룩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믿음의 시련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투명한 결정체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아브라함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인간에게 불가능은 죽음입니다. 죽었다면 그 이상의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가 막힌 환경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산에 불가능 속에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 속에 믿음을 갖고 일어설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에 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장사를 지내려고 메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기억합니다. 왜 주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죽었다고 생각되는 환경 속에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어서 기사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역사를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후반절을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에게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결과가 생기는 자연법칙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생깁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원인이 없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습

니다. 없는 것에게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없어도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실력이 없습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한 마디로 종합해야 합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하여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무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약사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없으나 주께는 모든 것이 있으니 주여 받으시옵소서’라고 주께 드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온 우주와 세계와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에 대한 무한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창출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두 번째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세 번째 18절을 함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이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이것이 곧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광활한 대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도저히 안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합하여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대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지경인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주시기를 하

나눔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자라게 합니다.

이런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환경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주여 도저히 저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근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여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당신 앞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은 가능하며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되신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의 환경 속에 그분의 간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온전히 투자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소망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주신 것을 찾을 수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온누리신문**